

의안 번호	1008
----------	------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8
----------	------

발의연월일 : 2025. 6. 10.

발 의 의 원 : 정순욱 · 권성현 · 김현일 · 박선애 · 백승규
오은옥 · 이해련 · 전홍표 · 최정훈
황점복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6·25 전쟁에서 참전유공자들이 조국을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쳤으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이 가능하였음.
- 평균 연령 93세에 이른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나, 그들의 호국정신과 6·25 전쟁의 기억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임.
- 현행 제도상 참전유공자 본인만 단체 회원 자격을 가져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정신과 역사 계승이 어려우므로, 유족 승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주요 내용

- 6·25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6·25 공법 단체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함.
- 6·25 참전유공자회를 광복회와 대등한 수준의 국가보훈단체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함.

3. 건 의 문: 붙임

4. 건 의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가보훈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국민의힘원내대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갔다. 6·25 참전유공자들은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 6·25 참전유공자들은 평균 연령 93세의 고령으로 백발과 전쟁의 상흔만을 짊어진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품고 있는 6·25 전쟁의 기억과 호국정신, 국가 안보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단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정신과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참전영웅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참전영웅들 또한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자격 승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법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염원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6·25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6·25 공법단체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셋째, 6·25 참전유공자회를 광복회와 대등한 수준의 국가보훈단체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그들의 마지막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2025년 6월 일

창 원 시 의 회